

성도의 빛 2
1983





17



24



42



58

성도의 빛 2

198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트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케이 에쉬튼
브르스 알 맥쿱키
엘 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앤지오 부쉬

차 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

잇을 수 없는 여름 엘마 제이 에이즈 9

참 하나님의 말씀이어라 태미 래비나 토빈 13

가정 복음 교육과 다른 상황에서의
비판에 대한 해결책 댄 워크맨 17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웨인 비 린 22

리그랜드 리차즈 루실 시 테이트 24

시험 가나코 야마부끼 34

물론 광고란 39

새롭게 된 포인팅 아이언 노인의 성약 린 엘 라이트 40

오만과 편견 수잔 이반스 맥클라우드 42

마음 속의 노래 헤이즐 롬 톰슨 53

성찬 마린 에버트 57

친구가 친구에게 진 알 쿡 장로 58

피부의 놀라운 감각 베시 오벤도 60

지역 지도자 메시지 이 도환 강서 스테이크 부장 61

지역 소식 62

성도의 빛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별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 211호, 제 19권 제 2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3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와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 1983년
제 211번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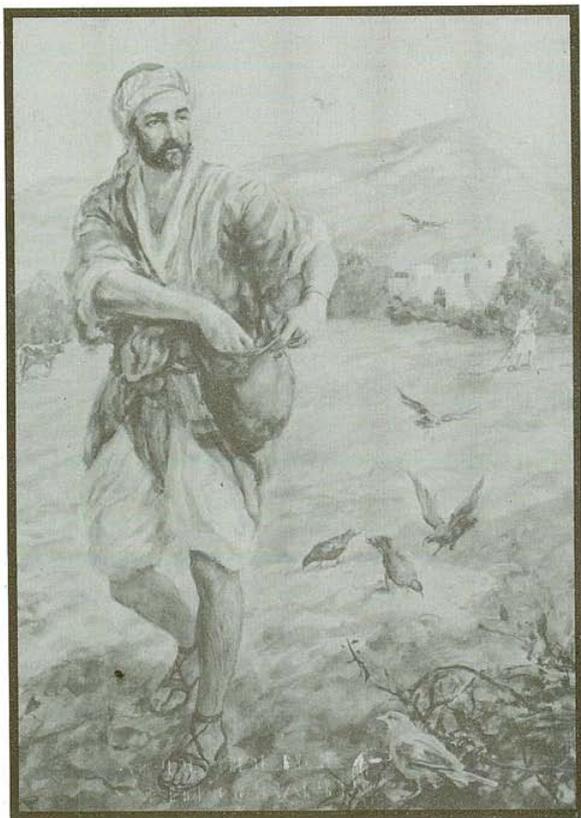
STOCK NO. PBMA0540KO PRINTED IN SEOUL, KOREA 2/83 International magazine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보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몇 년 전 어느 일요일 아침에, 나는 아이다호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스테이크 부장대에 머문 일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 가족은 성구 몇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성구 중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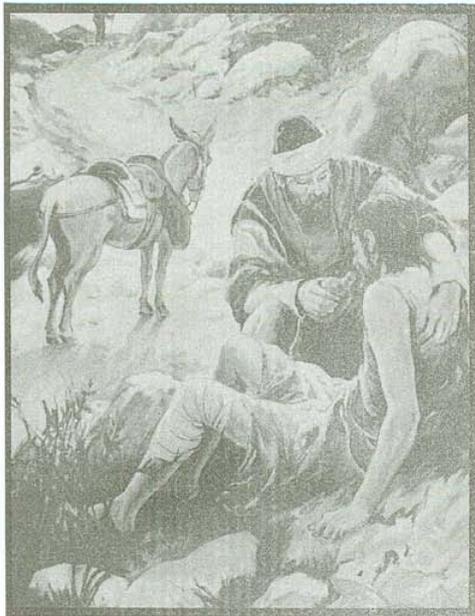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이 무의미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더 심오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나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서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뒤이어 이와 같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25) 또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누가복음 17:33) 바꾸어 말하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쇠퇴하여 죽을 것이나 남을 위한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자들은 성장하여 이 생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던 그날 아침에 나와 함께 지냈던 스테이크 부장은 13년

간의 충실한 봉사 끝에 그 직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큰 사랑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재산이나 세상에서의 그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심없이 베푼 큰 봉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유익을 생각지 않고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차로 달렸습니다. 그는 실제로 남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사적인 일을 회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결국 그는 살게 되고 그가 섬겼던 사람들의 눈에 위대한 인물로 비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이 지 지되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한 사람은 스테이크 서기석에 앉아 있는 그 마을의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그는 바로 12년 전에 조용히 꾸준한 노력으로 완전히 비활동적인 자신의 이웃을 활동적인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무관심한 이웃에게 관심을 표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가 쉬운 일인듯이, 우편 배달부도 자기 식대로 조용히 살아 나가는 것이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을 체쳐놓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으며,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일요일에 시온의 위대한 스테이크의 영예롭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새로운 부장을 지지하자, 서기석에 앉은 그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반적인 면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생활을 한 그는 그날 아침 스테이크 부장으로 지지받은 장본인에게 생의 기쁨과 의미를 심어 준 것입니다.

필립 부룩스(1835-1893, 미국의 목사, 작가)는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무덤 속에 묻히나 때때로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봉사한 소수의 사람만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나는 남부의 한 친구를 방문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그를 알게 된 것은 그에게 침례를 베풀어 줄 사람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우리가 그곳에 가기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하기 10년 전에 그는 교회의 선교 사용 소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흘러들어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 사무실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의 다른 책자도 그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에게 침례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후 몇 달 뒤에 그는 침례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시멘트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받는 봉급은 보잘것 없었고 집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의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함으로써 알게 된 남에 대한 커다란 사랑으로 그는 자신이 한 푼 두 푼 모아 온 돈으로 산 부지에

몸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 건물은 거칠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400명의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무지의 어둠 속에서 배움의 빛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행위가 이제까지 그들의 생활에 미쳐 왔고 또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남부 인도의 농촌 지역에 다섯 개의 교회의 지부가 세워졌습니다. 회원들이 3개 내지 4개의 아담하고 깨끗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각 건물의 문 위에는 영어와 타밀어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간판이 붙여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의자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우리와 같이 함께 모여 모임을 갖고 간증을 나누며 주님의 성찬을 들었습니다. 수억의 인도의 인구 가운데 현재 교회 회원은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인도에서의 교회 이야기를 쓰겠지만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 나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를 일주하는 그 긴 여행에서, 우리는 한때 브리감 영 대학의 교수였던 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그의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으므로 그와 그의 아내는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듯이, 퇴직하여 빈둥거릴 수도 있었으나 그들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지상의 어떤 곳을 찾아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러한 나라를 발견했습

니다. 그들은 소유하고 있던 훌륭한 재택과 자가용을 팔고 친구와 친척을 떠나 멀고도 불편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물을 물 위에 던”졌으며 (전도서 11:1 참조),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며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행하는 일의 결과를 점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도록 적게 일하고 많이 쉬고자 하는 그러한 연령에 가정의 안락과 사회와 친구들의 곁을 떠난 이 두 노부부에 대해 생각할 적마다 나는 주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마태복음 19:29) 나는 자신해서 주님의 교회의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나온 다른 연로하신 형제 자매나 독신이나 기혼인 형제 자매에 관해 들을 때마다 위에 인용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상의 주민들 또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훌륭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복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면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생들 간에 거의 일반화된 그런 불평을 그곳에

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주는 압박을 그들이 세상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을 취하는 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거운 부담인양 불평했으며 기숙사의 형편과 음식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나는 이들 젊은이들에게 학교의 압력이 너무 크거나 그들의 주거나 음식에 불만스럽다고 느낀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책을 잠시 덮어 두고 교실에서 나와 늙고 외로운 사람들과 병들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삶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내가 자주 다녔던 구두 수선점의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을 보기까지는 구두가 없는 것을 불평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병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젊은 처녀들, 심지어는 청년들도 그들이 과연 결혼하게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 거의 병적으로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결혼은 바람직한 것이며 당연히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그로 인해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보다 개성을 둔화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지상에서 결혼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려나 그들은 인생이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만큼 풍요롭고 생산적이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기쁨의 열쇠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전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돕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성도들에게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전 사업은 바로 비이기적인 봉사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우리 시대의 기적의 하나는 수만 명의 분주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서 얻어지는 감미롭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압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감미로운 축복은 문자 그대로 수많은 생의 질고를 치유해 주는 약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러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교성 58:27-28)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능력은 곧 우리가 힘써 노력할 때 자발적으로 뜻깊은 봉사를 행하는 능력이 됩니다.

에버슨은 모든 위대한 제도는 단지 위

대한 인간의 그림자가 확대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옛세이, 제1집 : 자립심 참조) 나는 내가 책임 맡은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수행한 분들을 회상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한국에서의 교회 현황 곧 7개의 스테이크와(현재는 11개임) 3개의 선교부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이것은 김 호직 박사와 그가 뉴욕의 코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복음을 가르친 두 젊은이—올리버 웨이먼과 돈 시 우드—의 그림자가 확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젊은이는 그들의 한국인 동료의 마음속에 물몬경을 읽어야겠다는 흥미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보인 그들의 관심과 행위는 코넬 대학에서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그들이 깨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바라는 학위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호직 박사는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뉴욕주 이타카에서 그가 봉사했던 교회와 물몬경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고국으로 갔습니다. 한국 동란에 참전했던 말일성도 미국 군인들도 역시 그들의 한국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식과 책임감을 겸비한 김 박사의 관심은 일본에서 파견된 미국인 선교사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주님의 사업을 이룩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의 날로 증가하는 수많은 사람의 영원한 유익에 영향을 미치며 장엄하게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필리핀에는 55,000명 이상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막강한 16개의 스테이크와 네 개의 선교부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매우 생산적인 선교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하나님 사업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제2차 세계 대전 태평양 전쟁시에 적십자사 회원으로 봉사했던 유타주 투엘라 출신의 숙녀인 맥신 그림 자매의 이야기가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녀는 미국인 장교와 결혼해서 대전 후 마닐라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으며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 자매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탄원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아시아의 선교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탄원을 대관장단에게 전했고 1961년에 비로소 그 나라에 공식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1961년 5월에 우리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임 장소가 없었으므로 미 대사관의 허가를 받아 마닐라 근교에 있는 미육군 묘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50,0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게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아침 6시 30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림 자매는 태평양 전쟁 중에도 줄곧 가지고 다녔던 손풍금을 연주했고 우리는 이국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간증을 나누고 우리가 그곳에서 막 시작하게 된 사업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한 명의 필리핀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전개되는 역사는 실망과 영광이 접철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과 그 외 총판 리 역원을 모시고 그곳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최대의 옥내 집회소인 아라비타 체육관에는 약 18,000명의 교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그 먼 옛일을 되돌아 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그녀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교회가 강해지고 그곳의 수만 명의 훌륭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는 그녀의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자매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우리도 필리핀과 같은 이국에 있었다면 그와 같이 했을 것이라고 말할 사람도 제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국적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나라나 도시에서 어떻게 생활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삶과 관심을 바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바는 만일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거나 우리의 삶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교성 58 : 27)—

주님의 영이 거하게 하고 싶다면 자신을 버리고 남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관심사를 뒤로 돌리고 남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쁜 소식에 관한 다음의 주님의 위대한 약속의 진실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나를 위해 제 목숨을 기꺼이 내던져 버릴 것이요, 만일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 던지지 않으면 잃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기꺼이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셉 스미스 역-마가복음 8 : 37-38)

이 말씀은 그분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진실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토론 유의 사항

1.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축복에

관한 여러분 개인의 느낌이나 경험을 말한다. 가족에게 그들 자신의 느낌을 말하게 한다.

2. 이 기사 가운데 가족이 소리내서 읽거나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여러분이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함께 미리 이야기하면 이 토론이 더 훌륭한 것이 될 것인가? 가족을 가르치는 일에 관한 정원회 회장이나 감독이 가장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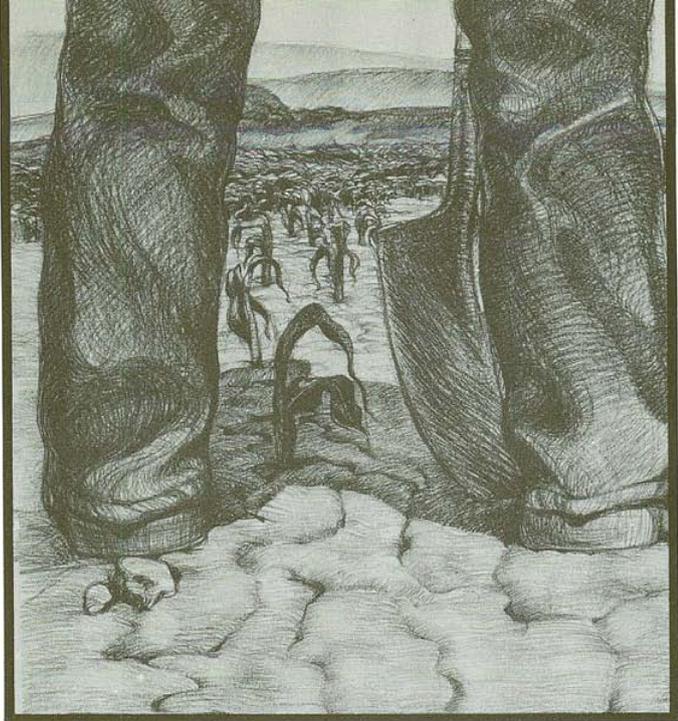
① 가장 행복한 자들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가장 비참한 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다.

②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생에 대하여 불평한다면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될 것이다.

③ 자기 연민의 병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④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⑤ 어떤 나라에서나, 도시에서나 가정에서나 생활에서 남을 위해 우리의 삶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잊을 수 없는 여름

앨마 제이 예이츠

나는 살아오면서 부친의 신앙을 의심해 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확신은 그분의 생명의 일부처럼 견고했고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라도 이겨 낼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살던 유타주의 한 조그마한 농촌에는 돈은 귀하고 할 일은 많았습니다. 한창 성장하던 그 시절, 여름은 유난히도 나에게서 힘든 계절이었으며 끝없이 고된 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사탕무우를 속아내는 일이라든가, 옥수수 밭을 호미질하고 도랑을 치우는 일을 해야 했으며 귀찮은 잡초는 뽑을 사

이없이 다시 자라났고, 거기다가 건초 더미를 운반해 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기분 좋은 일 곧 그 지루한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즐거운 오아시스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요일은 주님의 날임을 알았습니다. 잡초와 들판에 놓여 있는 건초 더미와 아직 거두지 않은 곡식들은 모두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팽이를 걸어 두거나 옥수수 밭에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따랐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

회는 여름뿐이었습니다. 이 짧은 여름 동안 기반을 잘 닦아 놓지 않으면 긴 겨울 동안을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풍부한 수확을 거두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풍작의 열쇠는 물에 있었습니다. ...유타에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비가 가끔 내렸으므로, 겨울과 봄 동안에 조금씩 저장해 두어야 했으며 덥고 건조한 여름에는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농장마다 관개 수로에 의존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을 공급하는 수로는 농부의 재해를 막아 주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관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때문에 안식일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농부가 물을 대어야 할 차례가 월요일이 되는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화요일에, 어떤 해는 그 외의 다른 날에 또 때로는 일요일에 그 차례가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농부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해엔 아버지의 차례가 일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에 늘 큰 감명을 받아왔으므로 그 해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부친이 주일날에 농장에 물을 낸다고 해서 주님께서 정죄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 주님은 부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으며 부친이나 다른 농부들이 일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부친은 주님께서 농부들을 위한 관개 계획을 세우실 것이므로 주님의 안식일에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결코 부친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씀으로 강조하시는 것

을 들어 본 적이 없으나, 그 결심을 몸소 실천해 보아셨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대야 할 차례가 주일날로 결정되자, 그분은 안식일에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그분은 농부들이 사용하지 않는 수로를 지켜 보았다가 수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요일까지는 그 농장에 물을 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친께서 주님의 날에 일을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께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는 안식일에 쉬기를 원했으므로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꼭 이루어야 할 일은 어쨌든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부친이 하시는 일을 수년 동안 눈여겨 보았습니다. 부친의 헌신과 결심은 나에게 주님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간증을 심어 주었습니다.

“직물 독을 끌어올려라.
 삽과 연장을 들고 가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돌보아 주겠다.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돌보아 주겠다.
 여름의 물 걱정은
 나에게 맡겨 두어라.
 내가 해주겠다”

그후 어느 해 부친의 신앙은 특별한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해에는 가뭄을 예고해 주거나 하듯 불볕 여름 더위가 일찍 다가왔습니다. 서서히 하루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잔디와 정원과 들판을 태웠습니다. 그해에 주일에 물을 댈 차례가 된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농장에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관개수로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장은 일요일이 되면 말라붙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어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보, 적어도 잔디와 정원에 는 물을 주어야겠어요. 타죽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물기라고는 전혀 없이 모든 작물이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농장에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부친께서 물댈 차례를 놓친다면 다음 일요일까지는 물을 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장은 물 한 방울없이 한 주일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기 전에 부친은 어깨에 삽을 둘러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친은 심한 절망감에 휩싸여 그날 아침 언덕까지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 몇 년 동안 부친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끝까지 다른 방법을 찾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그분은 수로에 도착해서 직물로 만든 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수로에 몸을 구부

린채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계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것을 믿고 몸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까?

부친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말씀을 전해 받았습니다. “직물 독을 끌어올려라. 삽과 연장을 들고 가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돌보아 주겠다. 오늘 일찍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도 반드시 돌보아 주겠다. 여름의 물은 나에게 맡겨 두어라. 내가 해주겠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러 구름한점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날을 예고 하듯이 진조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쨍쨍 내려져고 땅은 바삭 말라 먼지가 일었습니다. 아버지는 땀을 끌어올리고 수로는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 몰랐으나 단지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만은 알았습니다. 부친은 자신의 모든 생을 맡긴 어떤 힘에 자신의 농장을 맡긴 채 옷을 갈아입고 일요일 모임에 갔습니다.

그들이 모임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하늘은 여전히 맑고 공기는 건조했으며 농장은 폭염 아래 타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므로 어머니는 여전히 정원이 크게 걱정이 되어 아버지에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에 관해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군요. 정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하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두번째로 언덕을 올라 관개수로에 가 자신의 처지를 슬퍼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휴대용 직물 독을 수로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후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신앙은 어디로 갔느냐?”고 날카롭게 자문했습니다.

새로운 결의로 다짐한 부친은 수로에서 직물 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결코 다시는 안식일에 달구지를 물고 운하까지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면서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다가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시간도 못되어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에는 필요한 물기가 축축히 배어 들었고 잔디와 정원과 밭에도 생기가 되살아났습니다.

그 비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월과 8월의 무더운 날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율법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으로부터 도움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 한 이웃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일요일에 물대는 차레를 토요일 차레와 바꾸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잔디와 정원에 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만 토요일에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옥수수와 보리와 전초농장까지 물을 주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름 내내 비가 가장 필요했던 때는 주기적으로 구름이 모여 들고 비를 내려 농작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 보고 계심을 너무나 확신했으므로 여름 동안에는 한번도 도랑을 치우거나 옥수수밭에 이랑을 일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덥고 건조한 유타주에서는 농부의 생존은 수로에 달려 있었으나 이번 해의 아버지의 농장의 수로는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아버지는 농장에 물을 대지 않고 여름을 지내 본 적이 있었지만 금년 여름은 달랐습니다. 이 여름은 주님의 여름이었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이 되자, 아버지는 많은 건조와 많은 보리와, 저장할 곡식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참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으며 주님께서서는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적인 여름이 지난 후 나의 신앙은 전보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주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축복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 신뢰해야 합니다. 때때로 지평선에 구원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꿈이 시들어 버리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시련을 겪은 후에야 기적은 오는 것입니다. *

참 하나님의 말씀이어라

태미 래비나 토빈

나는 열 세 살 때부터 교회에서의 봉사 활동에 내가 큰 열의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훌륭한 카톨릭 가문에서 열 한 자녀 중 하나로 자라난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6년간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고 수녀로서의 최후의 서약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부임한 곳은 호주의 퍼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년간을 봉사한 다음 나는 시드니로 전근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참으로 보람된 것이었으며, 남을 돕는 일에서 많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러한 날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 보건대 그 당시 나는 나의 생의 진로를 변화시키게 한 경험을 얻도록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느 날과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수녀원에서 두 구역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한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짙은 색의 양복을 입은 두 청년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 큰 청년이 내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하고 혹시 말일성

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말씀했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해 본 후에 “알고 싶은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물몬경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을 방문한 것에 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원하는 것은 오직 34페이지를 읽고 기도하셔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종교가 나에게 중요하듯이 그의 종교도 그에게 중요함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34페이지를 읽고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만나 그 책을 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물몬경을 손가방 속에 넣고 갈 길을

났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34페이지(니파이삼서 11-28절)를 읽었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 옳은가를 알기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구세주의 그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내 눈 앞에 지나가는 모든 말씀들은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서 어느 때보다 훌륭한 느낌을 느낀 채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발견한 그러한 느낌이었습니

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내가 참된 무엇을 발견했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자신에게는 “아니야,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장로들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으며, 그들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십분 일찍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마치 일분이 한 시간처럼 길게 여겨졌습니다. 드디어 나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선 그들에게 물문경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마음속으로는 원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더 이상 그 책이 필요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 그 책을 받는 대신 내가 읽은 것에 대해 기도해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오.”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 책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

로들은 내가 무엇인가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페이지를 어제 밤에 읽어 보셨지요.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물문경을 읽고 느꼈던 점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물문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우리는 침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진리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침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자에게서 침례받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나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야 나는 그들이 물려서 나를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도를 통해 일요일[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에 침례받으라고 명하시면 그분을 따라 그렇게 행하시겠습니까?”

나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만이 있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여쭙어 보았을 때, 물문경을 읽었을 때 느꼈던 바로 그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상당한 시간 동안 아무 말없이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느낌이 아닙니까?”

나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권능을 가진 분에 의해 침례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요일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동안 망설였으나 드디어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받겠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을 때, 장로들은 나에게 성경에서 많은 놀라운 진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진리들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으나 전에는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려는 바를 다른 수녀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날 아침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 수녀원을 떠나올 때 어떤 불안을 느꼈지만, 한편 기쁘기도 했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는 한 훌륭한 회원의 가정에서 침례받을 때를 고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례받을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례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녀원으로 돌아와 소지품을 꾸릴 때 내 마음속에는 많은 훌륭한 추억과 감정이 교차되었습니다. 몇몇 수녀들이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을 찾았어요. 나는 물론이 되었어요. 오늘 저녁에 침례를 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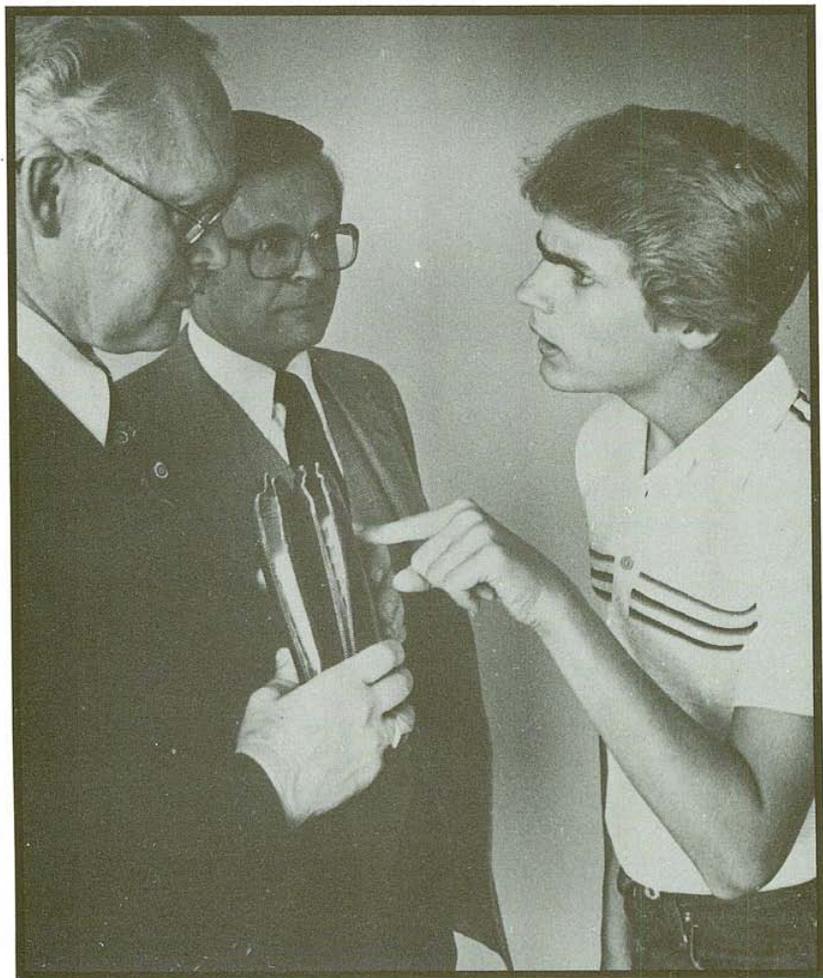
그들은 어안이 빙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 각자에게 물론경 한 권씩을 주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이것을 읽어 봐요.”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카톨릭 교회와 그 교회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들 각자와 같으신 분이시나 완전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시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 하셨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오늘날 이 지상에도 예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물문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

가정 복음 교육과
다른 상황에서의
비판에 대한
해결책

댄 워크맨



비판은 사랑에 대하여
 최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나
 사랑은 또한
 비판을 극복하는
 최대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정 복음 교사들이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 집의 십대의 아들이 불쑥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왔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 하고 뛰어난 학생들 중에는 우리들과 똑같이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만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학생의 부친을 잠시 바라보니 피곤한 듯한 몸짓으로, “우리는 그걸 설명할 만큼은 했습니다. 자 이제 두분께서 저 아이를 좀 다스려 주시지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좀 나이가 든 가정 복음 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 그

것은 좋은 질문이다.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너보다 두 살 정도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내가 처음으로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났을 때, 어떤 관념 즉 편견을 갖고 있었다. 나는 단순한 농촌 생활에서 나의 표준이 매시각 매분 도전받게 될 퇴폐적인 도시 생활로 옮겨 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임을 알고 새삼 놀랐지. 그중에는 다른 교회에 속한 학생들도 있었고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내가 말일성도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들과 같이 정지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 때가 있었지. 너도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지?”

크리스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자 가정 복음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거나 지상에서 선행을 행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께서 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필요한 구원의 의식을 행하도록 인정하신 교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훌륭한 것들을 갖기를 원한다...”

토론은 조용히 계속되었다. “주도 하 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엡 4:5)와 그 외의 몇몇 성구를 찾아 보고 나서 크리스는 곧 이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았다.

크리스를 괴롭히고 있던 질문에 대한 가정 복음 교사의 대답은 비판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1. 당황하지 말고 늘 준비를 갖추어라. 가정 복음 교사는 교회나 복음 원리 또는 다른 회원이나 지도자에 대해 비판하는 질문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러한 비판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돕도록 부름 받은 가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가정 복음 교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고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교성 121:41-42)

준비되어 있으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의견 차이로 말미암은 논쟁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가정 복음 교육에서 논쟁과 다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 가정 복음 교사는 온화하게 대해 주어 크리스가 편안한 방법으로 그의 말에 동의하고 결국 그가 선택하도록 주의할 기을ուն 것이다.

2. 긍정적인 면에 역점을 둔다. 어떤 해결하기 힘든 이야기가 나오면, 사려깊은 가정 복음 교사는 그 사람이 솔직한 질문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 후 그 내용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긍정적인 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가정 복음 교사는 크리스의 말에 두 가지 요점이 있음을 알았다. 곧 (1) 우리 교회만이 유일한 참된 교회인가라는 질문과 (2) 비회원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자신의 느낌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가정 복음 교사는 미리 그의 친구에 관한 크리스의 긍정적인 면에 역점을 두었다. 그 점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 다음 모두 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소년이 제기한 교리 문제를 다룬 것이다. 그의 접근 방법으로 인해, 가정 복음 교사는 논쟁을 피할 수 있었고, 쟁점이 없게 됨으로써 의견의 일치가 용이해진 것이다.

3. 급히 서둘러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생각하는 방향을 돌리기가 용이하지 않은 법이다. ...그리고 비판은 대개 감정적인 경험이다. 스스로를 시정하기 위한 비판의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한다.

미국에서 소를 물고 장거리를 가던 시절에 때로 소매들이 우르르 물려 도망치

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이와 같이 소메들이 몰려 다니게 되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망쳐 놓을 뿐만 아니라 소메 자체에게도 크게 해가 되었다. 소몰이꾼들은 경험을 통해 정면에서 소메를 제지시키려 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들은 그 곁에서 달려나가 소메의 맨 앞에 도착하여 선두에 선 소메에게 장애를 피할 수 있는 길로 다시 인도하여 결국 선두의 소를 잡아 서서히 움직이게 하여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다.

가정 복음 교사가 당면하게 되는 비판은 소메가 몰려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대개 두려움과 고통과 상한 감정과 오해의 결과로 빚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비판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해가 된다. 소메들이 도망치는 경우와 같이, 정면에서 그 비판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은 크리스의 가정 복음 교사가 행한 것처럼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이 평온한 길로 들어설 때까지 곁에서 나란히 달리는 것이다.

때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복음 교사가 단지 이야기를 잘 들어 주어야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종종 듣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말한 비판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는 모임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잘 들을 수 없습니다.” 또는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상호부조회는 험담하는 장소다”라는 말은 “나의 딸 부부는 이혼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 할지 걱정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가정 복

음 교사는 인내와 격려로 귀를 기울여 주고, 사람들이 복음의 정신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상처와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4. 부정적인 면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구 달리는 소메들의 진로를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소메 옆에서 나란히 달리는 것은 소메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곤란한 문제를 다른 어떤 사람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비평 곧 반대에 뛰어들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화해를 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비판적인 언사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에 동의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마 5:25) 이것은 우리가 비판의 소리에 우리의 음성을 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비판을 수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기에 앞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 내서 그에 동의하여 신뢰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에 대한 가정 복음 교사의 접근 방법이었다. 여러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동의하고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문제는 조용히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까지 다루지 않도록 한다.

5. 간증하라. 격려해 주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의 진실성과 교회를 인도하는 계시의 능력에 대해 간증한다.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 정죄의 메시지나 대립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크리스는 그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

는데 그것은 또한 그의 부모에게도 관심 있는 문제였다. 그의 부모님은 비활동적이었으나, 아들은 교회에 적극적이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듣고자 하는 대답을 다해 줄 수 없었다. 그래서 가정 복음 교사가 떠나면서 그들은 얼마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다시 찾아와 가족에게 그들이 준비한 목록에서 뽑은 복음 원리를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다. 각 공과를 마치고 나서 가족에게 그들이 알고 싶어했던 질문은 무엇이든지 말해 보라고 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것이었다. 그 후에 방문했을 때 크리스는 그를 괴롭히는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왜 교회는 그와 같이 값비싼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가정 복음 교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했다. 이 질문 내용을 분석하면 이것 역시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세상의 궁핍한 자들에 대한 관심 (2) 교회 건물에 소요되는 많은 액수의 돈.

그 질문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고 나서 그들은 긍정적인 면에 역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궁핍한 자에 대한 관심에 역점을 두는 한 그들은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가정 복음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 네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란다. 주님께서서는 참으로 지상의 사람들과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기쁘게 여기신 때가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의 훌

륭한 본보기는 에녹의 시온성이었다.” 그는 경전을 들추어 그것을 크리스에게 건네 주면서 “18절을 읽어 보겠니?”라고 말했다.

크리스는 그것을 읽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서 7:18) “시온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가정 복음 교사가 말했다. 그러한 문제에 교회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교회의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관해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족은 가르침을 받고 생산적이 되며 그들의 직업을 향상시키고 필수품의 비축을 통하여 육체적 및 정서적인 면에서 건강을 돌보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너는 교회 건물에 대해 말했지, 크리스야. 우리의 집회소는 우리가 예배하고 이러한 풍요한 것에 관해 배우는 곳이다.”

그의 동반자는 이렇게 말을 받았다. “정말 그렇단다. 내가 노스웨스트에 살았을 때의 일인데, 그곳은 작은 마을로 우리가 교회에 입교했을 때는 회원들이 그리 많지 않았단다. 우리는 배우기를 갈망했단다. 우리가 함께 모여 배울 장소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표현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곳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것은 정말 엄청난 희생이었던단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꼭 필요하고 실제적인 일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 모든 건축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우리는 기금이 허용하는 한 예배당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었던단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나요?”하고 크리스가 물었다.

“너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하고

동반자는 꺾꺾 웃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심스럽게 지켜 보아야 한다. 집회소나 신전은 매우 훌륭하게 짓지만 그것은 사치가 아니란다. 우리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종자의 생활에 주어지는 변화를 표현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지. 교회는 우리들에 관한 모든 것을 향상시켰다. 우리의 생활 수준도 말이야. 내가 복음이란 결국 궁핍과 모든 종류의 고통과 영적 및 육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다.”

이 경우에도, 이 가정 복음 교사는 또 다시 크리스를 만족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에 직접 맞닿지 않고서도 그의 방향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동안 그들은 그의 질문에서 빈정대는 요소를 무시하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잠재적인 부정적인 경험을 훌륭한 가르침의 계기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와 동일한 단계는 교회 지도자와 그의 회원들에 대한 비판이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화에서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지도자와 교회의 모든 회원이 그 문제에서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암시가 될 수도 있다. 제일 먼저 토론해야 할 사항은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원리로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정 복음 교사는 비판에 휘말려 드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론은 결국 교회 지도자는 영감의 과

정을 통해 부름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지지한다는 것은 그의 결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든 당사자가 책임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는 개념으로 이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을 지지함을 의미한다.

만일 여러분이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의 어려움과 여러분에게 미치는 지지하는 힘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가정 복음 교사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불완전은 자신의 구원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겸손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하든지, 다른 모든 것을 가려 주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비판은 사랑에 대하여 최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나 사랑은 또한 비판을 극복하는 최대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을 보여 줌으로써 사랑을 심어 줄 수 있다. 가정 복음 교육에서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이 성취한 것을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돕고 가르치고 지지하고 돌봄으로써 사랑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사랑을 심어 주는 과정인 것이다. *

수업이 끝났다. 소년 소녀들은 어느 때처럼 재잘거리며 그들의 책을 챙겨 넣었다. 그들은 혼자서 또는 무리를 지어 신학 연구원 중등부를 나섰다. 그들의 관심은 다음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혼자가 된 나는 교실 맨 앞자리에 맥이 풀려 지친 몸으로 앉아 있었다. 어느 정도 실의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듯 싶었다. 오늘은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날이었다. 나는 데니스로 인한 일련에 사태에 휘말려 있었다.

그는 복음에 관해 내가 말할 때마다 일일이 도전적인 태도로 맞섰다. 그는 앞서의 토론에서 우리가 대답을 찾은 것으로 생각한 몇 가지 문제를 또다시 들추어 냈다.

그는 교묘하게 나로 하여금 내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몰아 세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나는 다시 한 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영원한 원리가 참됨을 간증하고 내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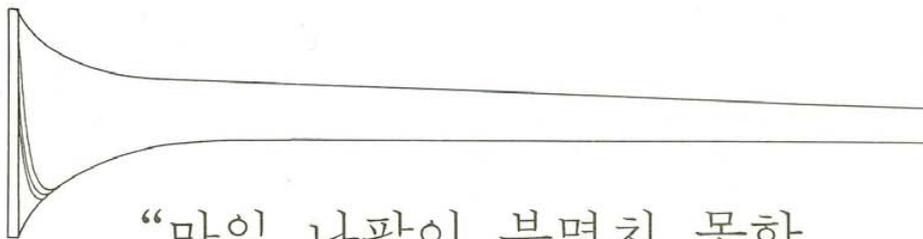
이제 나는 자리에 앉자 내가 어떤 일에 너무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확실히 나는 경전과 총관리 역원의 말씀과 내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를 두고 교회 입장을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너무 완고하여 청소년들이 내가 말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내가 데니스와 같은 소년이나 때때로 그를 지지하고 나서는 엘리스와 같은 소녀를 잃게 되는 것이나 아닌가?

나는 교실 앞의 내 자리에서 똑바로 몸을 일으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때 존이라는 학생이 놓아 두고 간 책을 가지러 잠시 들렀다.

“안녕하세요.”하고 그는 인사를 했다.

“그래, 존, 너는 어머니?”

“아주 좋아요. 지난 시간에 데니스 때 문에 잠시 공과 주제가 벗어나긴 했지만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웨인 비 린

재미있었어요.” 존은 다소 조심스런 어투로 다음 질문을 했다. “그 애가 선생님 말씀에 맞서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저슬리시지요?”

나는 그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데니스로 하여금 주님의 가르침에서 보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무능력에 있음을 묵묵히 시인했다.

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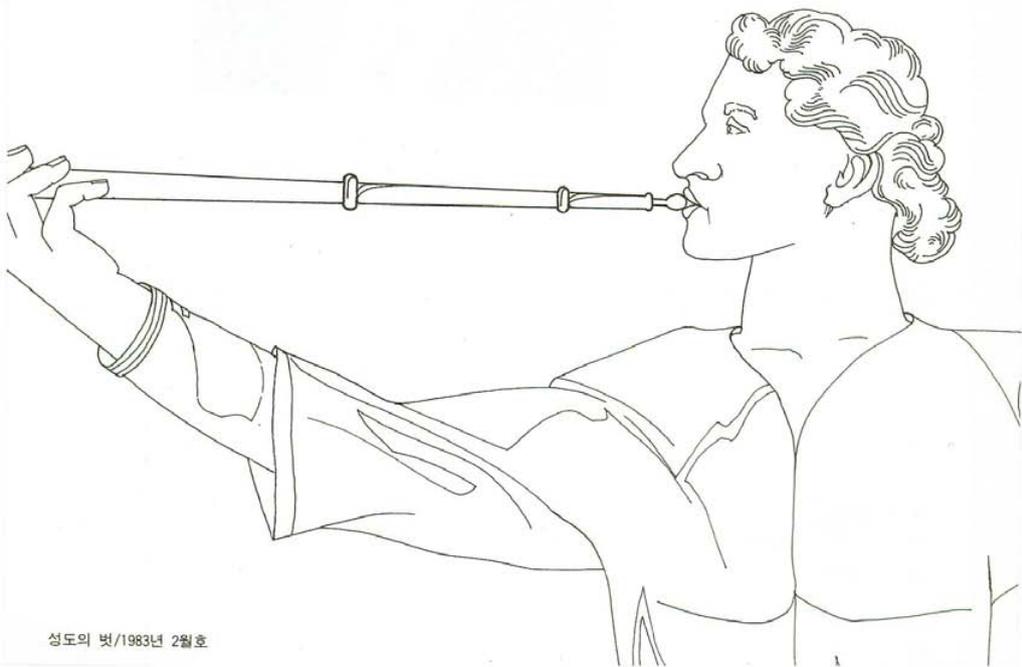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에 대하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데니스에게는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가 많이 있어요. 그는 이 반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일단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같이 된답니다. 그가 이 반에서 주장하는 논쟁은 친구로부터 배운 것이어요. 선생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대답을 그는 다시 그들에게 전해 준답니다. 그는 대항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랍니다.”

존은 그의 책을 집어 들고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웃음을 머금은 채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그동안 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는 데니스가 질문하면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대답을 찾도록 가꺼이 도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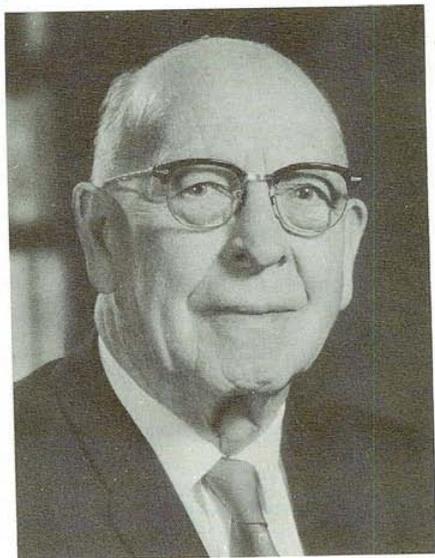
그러자 한가닥 두려움이 밀어 닦쳤다. 내가 좌절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들과 타협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데니스를 내 생각대로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 나는 그를 배신하여 그의 교사가 되는 성스러운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고전 14:8) 우리는 사람의 귀에다 대고 나팔을 크게 불지 않으며 무분별하게 그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부드럽고 확실하고 분명해야 한다. *



리그랜드 리차즈

루실 시 테이트



이 기사 내용은 루실 시 테이트의 사랑하는 사도님 리그랜드 리차즈에서 발췌한 것으로 최근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발행되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가 말씀하려 일어 서자 청중들은 술렁거리기 작했다.

대부분은 전에 그의 말씀을 들었으나 다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유우머와 그의 수정같은 순수성과 그의 개성이 짙은 구수한 일화와 복음의 구원의 권능을 설명하는 그의 이야기를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총관리 역원 중에서 누구도 그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한 사람, 즉 그 만큼 오래 산 사람은 없다.

사실, 1982년 6월 19일에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장수 기록을 세웠다. 그 날로 데이비드 오 맥 케이 대관장이 96세 132일을 사셨던 기록보다 하루를 더 넘겨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가장 오래 지상에 산 총관리 역원

이 되었다.

지금까지 총관리 역원이 세운 기록 가운데 장수 기록을 세우기 며칠 전에 리차즈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의 종아리 아래를 절단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그것은 다리 아래의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큰 수술을 받고 난 뒤에도 그는 의족과 보조 기구를 사용하여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곧 업무를 시작하였다.

리차즈 장로는 여러 해 동안 어려움을 당했으나 기운이 정정하여 조금도 기력을 잃은 것 같지 않다. 그분의 음성인 산 증거가 된다.

쨍쨍 울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속도도 빨라서 듣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오히려 그분이 숨을 돌릴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가 전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신선함과 생기로 가득 차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생명감을 더해 준다. 말씀을 하시는 중 결론 부분에 들어서서, 하던 말을 멈추 시고는 관리 역원이나 사회자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할 시간이 있을까요?” 하고 물을 때가 여러 번 있다. 사람들은 리차즈 장로가 하루 종일이라도 말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에게서 흘러나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즐거움을 그분도 역시 갖게 되시기를 우리는 기원한다.

그는 덕망있는 집안 출신이다. 리차즈 가문에서 교회에 다섯 명의 사도를 배출했는데 그중 두 사람은 대관장단의 일원(윌라드와 스티븐 엘)이었으며, 두 명은 십이사도 평의회 의 회장(프랭클린 디와 조지 에프), 그리고 현재의 리그랜드와 그리고 한 명은 십이사도 보조(스테인·

너)와 한 명은 칠십인 정원회(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의 한 분인 프랭클린 디)이다.

현재 96세인 그분은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 역사의 반 이상을 사셨다. 그분은 존 테일러로부터 스벤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열 명의 교회 대관장에 책임기에 걸쳐 사셨다.

리차즈 장로의 소년 시절 리그랜드 리차즈는 1886년 2월 6일에 유타주 파밍톤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모는 조지 에프 리차즈와 알미라 로빈슨 리차즈였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열 다섯 명의 자녀 중 세째였다.

생활이 어려웠으므로 어린 아들들조차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연령과 이해의 수준에 맞는 일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끊임없이 그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11살이 된 리그랜드는 성인 남자가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그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으므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매일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16헥타르나 되는 옥수수 밭에서 호미로 잡초를 뽑고, 땅을 갈고 너비가 3.5미터나 되는 트랙터를 운전하며, 건초, 목재, 벽돌, 석회, 나무를 운반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겨울이 되면 생활이 어려웠다. 리그랜드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얼어 붙은 숲에서 땀감을 구하고, 삼목나무 그루터기와 달아나 버린 말들을 찾으러 협곡으로 간 일에 관해 말씀해 주신다.



사진으로 보는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의 삶의 과정,
소년 시절,
선교사,
아내 아이나 제인 애쉬튼과의 신혼 시절,
교회 지도자,
총관리 역원 시절

아버지의 모범을 따르고 기꺼이 순종하는 정신을 지니고 있는 리그랜드에게 봉사하는 극히 당연한 것이다.

집사 정원회 회장인 그는 아버지가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봉사한 것과 같이, 그 직책에서 충실하게 봉사했다. 그 경험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옛날을 전하신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집회소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두 개의 큰 난로에 펄 장작을 패서 그것을 나무 상자에 실어 날라야 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먼지를 닦고 불을 피워 건물을 따뜻하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등유 램프의 기름을 청소하고 거기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

다. 우리는 또한 집회소 주변도 보살피야 했습니다.”

리그랜드의 부친의 일상의 가르침은 매우 감동적이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는 어느 날 겪은 일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나는 우리가 처음으로 놀이를 했던 곳에서 빠져나왔으며 나는 내 친구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그곳에서 들은 것과 같은 좋지 못한 이야기로 친구의 마음을 더럽혔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장차 있을 선교사 부름에 대비하여 준비할 것을 결심한 그는 경전을 연구하고

암송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작업은 일생 동안 계속되었다. 그의 연구로 그는 또한 예언자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으며, 특별한 의미에서 그들은 그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가장 학식있는 친구를 사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 준 그들의 생활과 일과 가르침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과 매일 접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시련 리그랜드는 그의 젊은 시절에도 육체적으로 안이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러 번이나 병고와 사고로 말미암아 육신은 허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강했다.

리그랜드는 아주 어렸을 적에, 도끼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얻어 맞은 적이 있다. 그는 기절하고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졌으나, 신권의 축복과 치료를 받고 나서 회복되었다.

이 사고가 있는 지 얼마 후에 리그랜드는 말이 갑작스럽게 뒤로 움직이는 바람에 마차에서 떨어졌다. 그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 마차 바퀴가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 그를 채 끌어내기도 전에 마차 부대가 앞으로 빨리 달리던 속도로 바퀴가 두번째로 머리 위로 지나갔다. 깜짝 놀란 그의 아버지가 우는 아이를 팔에 안고 축복을 했다. 다시 그는 회복되었다.

8세에 리그랜드는 고관절염에 걸렸다. 9개월간 그는 복사뼈와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허리 둘레에 석고 깁스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동안 그는 목발을 하고 있어야 했고 일년 동안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다. 그해 말에 아직도 깁스를 하

고 있었는데 그는 사나운 수양의 공격을 받았다. 가족이 그에게로 달려들어 그는 울타리에 몸을 의지하고 손으로 가족의 공격을 막아 보려 했다. 그때 리그랜드의 허리에 두른 석고 깁스 때문에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9살 때 아직 목발을 짚고 다니는 중에 그에게는 또 하나의 불운이 겹쳤다. 그는 다시 포장 마차 아래로 떨어졌다. “바퀴가 내 팔 위로 지나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나는 내 목발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겨우 짐 밑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팔이 무서울 정도로 굵어졌지만 나는 부친께서 베이신 패스처에서 돌아와 나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의사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려서 그는 성홍열을 심하게 앓아 여러 날 동안 체온이 심하게 올라 떨어지지 않을 앓았다.

드디어, 19세가 되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리그랜드는 다시 목발에 의지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무릎쪽에 넓게 깁스를 해야 했다. 그는 집에서 건강을 돌보라는 충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부친에게 신권 축복을 해 달라고 하고, 목발도 사용하지 않고 깁스도 떼어낸 채 예정대로 떠났다.

한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모든 사고와 질병 속에서도 그는 영원히 불구가 되는 길을 면할 수 있었다.

그 예외는 좌골에 문제가 생겨 그 곁과 한 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3.8센티미터나 짧아져, 그는 일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되어 계속해서 불편과 고통을 받았다.

신체적인 질병은 리그랜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리차즈 장로가 처음으로 보낸 2년간의 선교 기간 중에 그는 시력이 나빠졌다. 전혀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마치 배멀미를 하는 것과 같았으므로 몹시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1912년,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리그랜드 장로는 무서운 질병인 천연두에 걸렸다. 그런 다음 1918~1919년 독감이 심하게 유행했을 때, 그는 그 병에도 걸렸다.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은 외에도 리차즈 장로는 1942년과 1964년에 일어난 두 번의 심장마비로 고통을 받았다. 처음 심장마비가 발생한 직후에 의사는 그가 “하루만 지나면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살았으며 점차 회복되었다.

그때로부터 일상적인 업무를 해나갔으나 그의 동료들은 그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보았다. 예전에 앓은 둔부의 질병으로 그는 걸음걸이가 시원치 않았으나, 그 때문에 그 동작이 조그만 치도 느려진 것은 아니었다.

1978년에는, 리차즈 장로는 탈장 수술을 받은 뒤에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와 함께 신전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키 위해 걸어 들어갔다. 패커 장로는 그분을 부축하면서 걱정스런 어조로 “지금도 계속해서 고통스러우신가요?”하고 묻자

“그래도 서 있을 수는 있어요.”라고 그는 유쾌한듯이 대답했다.

1979년 2월 23일에 리차즈 장로는 병원으로 실려 갔으며, 병원에서 그는 거의 한 달간을 위독한 상태로 보냈다. 그의 사망 기사가 씌어졌으며,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들은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리차즈 장로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후에 십이사도 모임에서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는 희의록을 읽었는데, 내가 여러분을 희롱한 셈이 되었지요?”

리그랜드 리차즈의 성품 리그랜드의 소년 시절의 교육과 그가 어려서 겪은 많은 시련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복음에 의지하고, 신앙으로 가득 찼으며,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근면성과 약속 이행 리차즈 장로가 1905년에 홀랜드로 처음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선교 사무실에서 일하라는 지명을 받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언어 습득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으며, 언어 구사에 부족을 느껴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는 사무실의 일을 서둘러 열심히 해치우고는 홀랜드어에 매달렸다. 그러한 그의 열성 위에 선교사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복음 전파를 갈망한 나머지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홀랜드어를 공부하고 사무실 일을 해 놓아 오후에는 밖에 나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게 준비했다.” 매일같이 그는 하루에 50, 92, 110개의 소책자를 배부했다고 기록했다. 그 결과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없고 주저했지만 많은 복음 토론을 하게 되었다.

그가 일종의 “시간제” 선교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 선교사들이 한 달에 단지 평균 197개 정도의 소책자를 주었다는 사실로 분명



리차즈 장로 부처가 1959년 5월 그들의 결혼 5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다.



1905년에서 1908년까지 홀랜드에서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되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뒷줄 중앙)에 그의 부친 조지 에프 리차즈 장로가 서 있다. (좌단)



히 알 수 있다.

1926년에, 리그랜드는 단기 선교사로 나가라는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부름을 받아 하던 사업과 가족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 봉사했다. 1929년에 그는 그랜트 대관장이 그에게 그의 집과 사업체를 팔아 캘리포니아로 이사하라는 부름에 응하여 그곳에서 그는 그렌데일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다가, 헐리우드 스테이크의 부장으로 봉사했다. 그러한 부름은 당시 교회 역사에서는 흔치 않은 것이었으나 리차즈 장로는 그에게 전해진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전해 준 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관장님께 가서서 내가 주님과 교회를 무엇보다 크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가겠다고 말해 주시오.”

신앙 리차즈 장로가 그의 첫번째 임지에서 집으로 올 때, 배가 몹시 거세게 흔들렸다. 그들이 미국의 해변가에 거의 이르렀을 때 무서운 폭풍우가 일어났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며, 갑판에 묶여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제멋대로 굴러다녔다. 스칸디나비아에서 돌아오는 자매가 “리차즈 형제님, 형제님은 조금도 걱정하지하지 않는 것 같군요.”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매님이나 다른 여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방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입니다. 나는 내가 선교 사업을 명예롭게 마친다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나는 내 사명이 주님께 인정되었음을 확신했으며, 나는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1952년 십이사도 경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을 당시에 가족과 함께 포즈를 취한 리차즈 장로가 왼쪽에 앉아 있다.

감사 깊은 감사의 태도는 리차즈 장로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홀랜드의 암스텔담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조그만 예배당으로 들어가 연단 뒤에서 무릎을 꿇고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특권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가슴 속이 차고 넘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은 여러 해 동안 그에게 계속되었다.

광범위한 교회 봉사 주님은 리차즈 장로를 놀라우리만큼 여러 번 봉사하도록 부르셨다. 그는 복음 선교사로 두 번, 선교부장으로 두 번씩 모두 거의 10여 년 동안 봉사했다. 그는 총관리 역원으로 44년간을 봉사했으며 아직도 계속하고 계시다. 그 밖에도 그는 오레곤주 포트랜드에서는 지부장으로,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감독(2번)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지런히 일했다.

리차즈 장로는 1938년 4월 6일에 교회의 제 7대 관리 감독으로 지시받았다. 그의 14년간의 재임 기간 중에, 관리 감독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공헌을 했다.

- 와드의 유지와 필요 사항에 대한 교회의 전반적인 예산 조직.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당시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로서, 그 변천 과정을 목격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한다. “그것은 와드와 스테이크 재정의 전반적인 개념을 변혁시킨 것으로 교회 전체에 큰 유익이 되었다.”)

- 모든 단위 교회에서 십일조와 헌금은 먼저 관리 감독단 사무실로 보내며 그 후에 교회의 지역 단위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다시 경비를 되돌려주는 제도.

- 전체 교회 회원 기록. (그 이전에는 회원 기록은 다만 와드 수준에서만 기록되었다.)

- 개인상 및 그룹상 프로그램.

- 교회 전체를 통해 성찬식 참석이 현저하게 증가됨.

- 와드 및 스테이크 집회소 부지의 조경 및 미화.

교회 회원 수가 상당히 적었을 때의 관리 감독으로서, 리그랜드 리차즈는 조셉 엘 워스린 감독(보좌)이 “개방 정책”이라고 한 것을 내세웠다. 워스린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그의 입기가 시작될 때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그분이나 그의 보좌들과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무실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 미망인, 고통당하는 사업가, 문제가 있는 청소년, 이주민 등은 항상 리차즈 감독으로부터 친절한 조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리차즈 장로 1952년 4월 6일 일요일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였다. 122차 연차 대회의 오전 모임이 막 끝났다. 아무런 예고나 사전에 경고도 없이 리차즈 장로는 당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보좌인 헨리 디 모일 부대관장으로부터 대관장이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보기를 원한다는 전갈을 받았다. 리차즈 감독이 그곳에 도착하자, 맥케이 대관장은 그에게 그가 2월 3일 조셉 에프 메릴 장로의 사망으로 생긴 십이사도 정원회의 후임으로 선택되었다고 말했다. 리차즈 장로는 그 경험을 돌이켜 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도 울고 대관장도 울며, 우리는 서로 얼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

리는 오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리차즈 장로는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으로 30여 년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수행하셨다. 그가 한번도 멀리 한 적이 없는 선교사의 일을 제쳐놓고라도 리차즈 장로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한 몇 가지 일에는 특별 행정 업무 및 여러 가지 임원회와 위원회의 일을 맡았다.

대부분의 총관리 역원과 마찬가지로 리차즈 장로는 상당히 여러 곳을 여행하며, 간중의 음성을 높였다. 그는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다니며, 선교부를 방문하고 대회에 참석했다. 그 외에도, 그는 지역 대회에 참석하여, 솔트레이크 시티의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를 전혀 바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기이한 업적 리차즈 장로가 교회에 공헌한 것 중에서도 항상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의 최초의 저서, **기이한 업적**이다. (그는 세 권의 책을 저술하셨다.) 32년 동안(1950~1982) 23판을 거듭한 **기이한 업적**은 물론경을 제외하고 교회의 다른 어느 책보다도 많이 읽혀지는 것으로, 발행자는 미국에서 인쇄된 150내지 200만부 외에 유럽에서도 5만부가 인쇄되고 있다고 한다. 그 책은 18개국어로 번역되었다. 리차즈 장로는 책 판매로 인한 인세를 결코 받지 않았으며, 전액을 교회의 선교 사업에 기증했다.

그 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감화를 받거나 개종된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미친 그 책의 영향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야기는 전세계의 모든 민족의 각 연령

층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다. 단 하루라도 그 책에 대하여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훌륭한 책을 쓴 데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리차즈 장로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거나 편지가 오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리차즈 장로는 **기이한 업적**을 우리 시대가 주님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 바친 가장 중요한 공헌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나는 어느 시대에나 이 세상에는 교회 회원이 되기에 충분히 훌륭한 남녀가 수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다 함께 배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리차즈 장로의 가족 리차즈 장로는 공적인 면에서 분주하게 봉사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간의 닦을 튼튼히 내렸다. 그는 그의 아내인 아이나(1977년 사망)에게 참으로 충실했으며, 그의 여덟 명의 자녀에게도 그러하셨다. 그 가족의 유대는 그와 아이나가 결혼한 1909년 5월에 시작되었다.

리차즈 장로는 항상 아이나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려 노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전하고 계시다. “자녀들이 첫머기었을 적에, 아이들이 아프지 않으면 아내가 밤에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내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으며(그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나는 책을 써야 했으므로 밤에는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면, 나는 급히 잠자리에서 빠져 나와 우유를 먹고 싶어하면 우유를 타 주고, 기저귀도 갈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프지 않는

한 밤이면 자녀를 돌보는 아내의 일을 내가 맡아 했습니다.”

자녀들이 몸이 아플 때는 그가 도와주지 않는 것 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로 자녀들마다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부친이 그들을 잠재워 주며, 달래 주고, 다리가 가려울 때는 굽어주고, 또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모든 자녀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깊고도 확실하며, 언제나 그러했다.

1959년 5월에 리그랜드와 아이나는 그들의 결혼식을 축하했다. 그들은 흘러간 50년을 돌이켜 많은 고난과 기쁨과 특실을 되새겨 보며, 아이나가 한 마디로 요약했다. “우리 만큼 인생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내가 사망하자, 리차즈 장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영원히 엄마와 함께 하게 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엄마는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될 천사와 같이 훌륭한 분이시므로 그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실 것이야.”

사람들의 친구로서 리차즈 장로의 현실적인 태도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매력을 준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도이다. 그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그가 설교를 하기 전후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의 사랑과, 따스함과 진실성을 함께 나눈다. 그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잊어버려도 총관리 역원이 그들과 약속했다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와의 개인적인 접촉으로 그를 잊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그와 함께 시간을 즐기며, 그에게서 배울 수 있다. 96세인 그는 얼마간 더 이곳에 체할 것이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90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장로님의 인생을 미국에서 다 보내셨습니까? 그 말에 리차즈 장로는 미리 준비라도 했듯이 “아직 아닙니다.!”하고 말씀하셨다. *

19세가 되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리그랜드는

다시 목발에

의지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무릎쪽에

넓게 깎스를 해야 했다.

그는 집에서

건강을 돌보라는 충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부친에게

신권 축복을 해 달라고 하고,

목발도 사용하지 않고

김스도 떼어낸 채

예정대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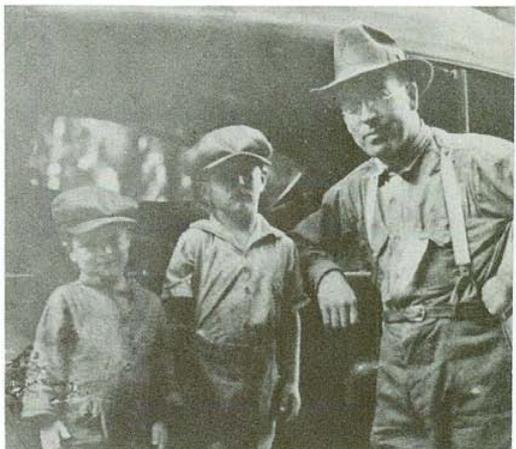
사진 설명

위 왼쪽 : 1925년 12월 30일에 찍은 가족 사진으로 리차즈 장로는 1926년에 미국 동부로 단기 선교 임무를 맡게 되었다.

위 오른쪽 : 한 세기가 바뀔 무렵 리차즈 장로가 그 십대의 시기를 보낸 유타주, 투엘레에 있는 조지 리차즈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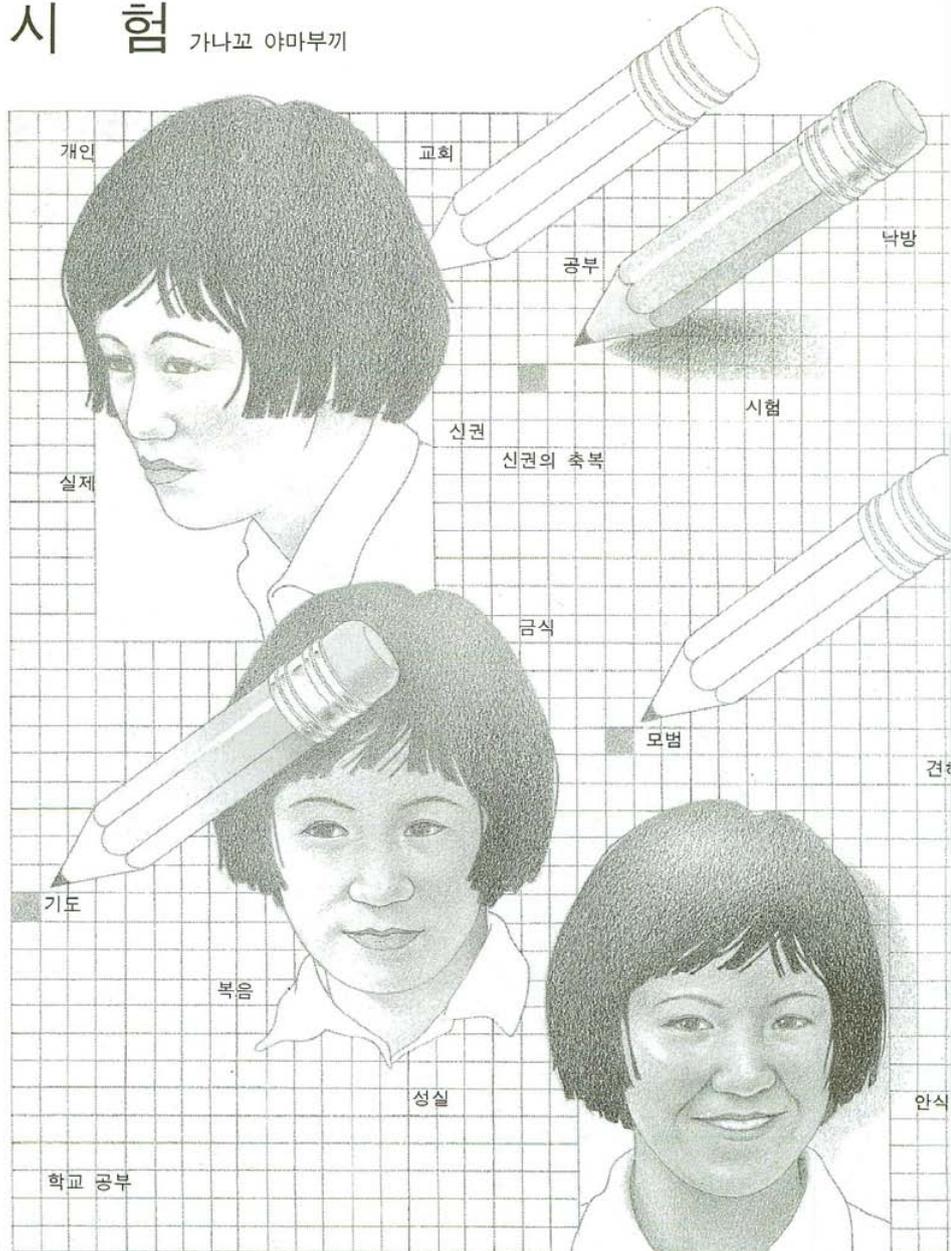
아래 왼쪽 : 1938년 새로 관리 감독으로 부름받은 리그랜드 리차즈 감독이 그의 보좌인 마빈 오 에쉬튼(왼쪽) 조셉 엘 워딩튼(오른편)과 함께 있다.

아래 오른쪽 :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슈거 하우스의 리그랜드 리차즈 감독이 와드의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 모임에서 그의 아들 라몬과 리그랜드와 함께 있다.



시 험

가나꼬 야마부끼



로발드 스테르키 그림

신학 연구원

합격

신앙

간증

나도 대학 입학 시험으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부모님께서
내가 침례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시계 바늘이 제자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시계를 올려다 볼 때마다 언제나 같은 시간이었다. 왜 선생님은 빨리 들어오셔서 시험을 시작하여 이 초조한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는 것일까?

대부분의 일본 학생들처럼 나도 대학 입학 시험으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일본에서는 시험에 떨어지면 대학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학생들은 일년 내내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유명한 이야기가 생겨났다. “네 시간 자는 사람은 합격하고 다섯 시간 자는 사람은 낙방한다.” 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밤잠을 안 자며 시험 공부 준비를 해 왔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독려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수도 없이 들어온 터였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시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내가 침례받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인가

아닌가 하는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년 동안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입교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특히 아버지께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서 애써 온 것이다.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대학 입학이 결정되고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도 내가 침례받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나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3분 전이었다. ...

나는 물문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그해 여름에 킴볼 대관장이 삼뽀로를 방문하셨다. 나는 다른 많은 교회를 다녀 보았지만, 그 모임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모든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당시에는 그것이 이상스럽게 보였다. 다른 교회에서는 사람들은 단지 모임에 참석하여 앉아서 말씀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물몬 교회에서는 열심히 생활하고, 삶을 사랑하려 애쓰며, 주께서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삶을 향유하는 듯이 보였다.

나는 또 내가 두번째로 물몬을 찾아 갔을 때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그해 11월 3일 지부의 추수 감사제 파티 때였다. 언니가 내게 교회에 가보자고 했으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말로 그들은 내게 그런 느낌을 안겨 주었다. 나는 전에는 한번도 것처럼 영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맛보지 못했다.

그때부터 나는 교회에 매주 참석했으며 모두가 나를 따스하게 맞아주었다. 선교사들은 내게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으며, 스스로 진리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다른 교회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나, 이 교회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라도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물몬경을 읽고 그에 대하여 기도했다. 점차 나는 내가 이 지상에 온 목적과 이 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간증을 갖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았다.

4월에 지부에서 청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참석자가 나 한 사람뿐이었다.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교사는 나를 기다릴 것이다. 그것 역시 이상한 일이었다. 왜 그녀는 것처럼 참을성이 있는가? 내가 온다는 것이 확실치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가?

그 즈음에, 선교부장이 교체되어 스즈

키 선교부장 가족이 샅뽀로로 왔다. 그 가족에는 나와 나이가 같은 나오미라는 여학생이 있었다. 지부내에 같은 또래의 여학생이 우리 둘밖에 없었으므로, 우리는 곧 친구가 되었다. 나오미는 내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그녀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 교사의 참을성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오미가 보여 준 모범으로 말미암아 나는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게 되었으며 작은 간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진심으로 침례받기를 원하게 되었다.

나는 그 축복을 받는 것에 관해서 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반대하셨다. 이번에는 조그만 간증을 지니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다.

“신앙이란”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루나 이틀 사이에 자라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이야.” 아버지는 학생에게는 학교가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므로, 침례받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그것은 가슴아픈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고, 그 말씀에서 한 가지는 옳다고 생각했다. 종교는 하루 이틀만에 생겼다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생을 건 대모험이라는 것을! 나는 신학원 중등부에 참석하여 열심히 구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공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제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해는 또한 고등 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는 해였으므로, 부모님은 내가 교회의 숙제가 아니라,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시간을 쓰기를 원하셨으며

로 가정 학습 교재를 살 수 없었다.

같은 반에 다니는 친구들이 내게 그 교재를 선물로 주었을 때 나는 뿔뿔이 기뻐했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그 교재를 열심히 읽는 것이었다. 나의 진행 속도는 다른 사람보다 느렸지만, 나도 교재를 다 끝내고 그것을 선생님께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고등 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하여 한숨을 돌렸다. 나는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도 학교 성적이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셈이라고 생각하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침례에 관하여 부모님께 여쭙어 보았다. 부모님의 응답은 나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다. “아니다”하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학교 공부가 더 어려워진다. 교회도 나가고 학교 공부도 할 그러한 시간이 없단다.”

그러나 내가 부지런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자 부모님은 점차 언짢아 하셨으며 일요일에 내가 집을 나서면 거칠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러나 여러 달이 지나자, 부모님은 결국 내가 교회 참석을 중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반대로 다소 수그러졌다. 나는 계속해서 신학원 중등부 교재를 연구했고, 간중도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드디어, 나오미가 함께 그 문제에 관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일년 동안 안식일마다 우리는 금식했다. 나오미는 나와 함께 줄곧 금식하고 기도했다. 나는 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간증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되었고 우리는 그 해에 다른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결국, 내 생각도 3학년 학기 초가 되자 흔들리게 되었다. 3학년은 고등 학교를 끝내는 학년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해였다. 나는 또한 시험을 친 후에도 부모님이 내가 침례받기를 허락해 주실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네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그 교회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증명해야 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방법은 쉽게 보이질 않았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학교 공부가 교회 일이나 그 밖에 어느

나는 신학원
중등부에 참석하여
열심히

구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공파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제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커지게 되었다.

것보다 급선무였다. 신학원 중등부 공부도 쌓이기 시작했으나, 나는 칫례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신학원 중등부 공부에 다소 게을러진다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신학원 중등부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가장 크게 성장했고 가장 강한 간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13개의 가정 학습 책이 내 책장에 어지럽게 꽂혀감에 따라 그러한 간증도 점차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내 양심은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으며, 학교 공부를 하는 중에도 교회 공부와 신학원 중등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2월 25일에 나는 시험이 시작되는 날인 3월 4일까지 13권의 책을 모두 마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했다. 문제지를 풀고 다른 학교 숙제를 하는 사이 사이에, 신학원 중등부 숙제는 즐거운 기분 전환이 되었다. 3월 2일에 나는 숙제를 모두 마쳐 제출하여, 신학원 중등부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시험칠 시간입니다.” 시험 감독 선생님이 말씀했다. 나는 시계를 보고 기도를 드렸다. 마치 로보트 대열과 같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칠 입시생들이 시험 장소로 들어갔다. 나도 느릿느릿 그들과 합세했다.

나는 합격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쁜 일이었다! 나는 뿔뿔이 기뻐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합격자 공고가 나 붙었고 나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부모님께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고 또한 이제는 내 소망-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여쭙어 보았다.

“안된다.” 아버지는 한 마디로 말씀

하셨다. 그 말씀에 나는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전에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던 어머니께서 나를 두둔해 주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 왔으며 4년 동안 교회에도 진실되게 다녔음을 상기시켜 드렸다. “그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예요. 우리 딸이 그 교회에 들어간다 해서 잘못될 게 없을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교회인가 봐요. 우리 딸이 왜 항상 그 교회에 나가기를 원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나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나는 부모님이 나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것임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셨으며 내가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나는 것처럼 훌륭한 부모님을 모신 것에 감사를 느낀다. 나는 부모님 역시 내가 일시적인 충동으로 교회에 가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인식하셨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부모님은 내가 칫례받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나는 청년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날, 그 의식을 받고 성약을 했다. 함께 신학원 중등부에 다닌 내 친구들이 와서 칫례식을 도와 주었고, 우리 가족들도 대부분이 참석하였다.

일본에서 교회에 다니는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중에 부모가 회원인 사람은 약 5퍼센트 밖에 안된다. 그들은 가족과 복음을 나누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부모가 불교도나 신교도인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염려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기 위해서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 *

있던 팔을 펴서 그의 허약한 몸을 덮고 있던 담요와 해진 이불을 똑바로 펴놓도록 애를 썼다. 그런 다음 굵은 마디가 긴 손을 들어 올려 어깨 밑으로 흘러내린 아름다운 회색 머리를 두 갈래로 땀아 내렸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머리를 단정하게 땀아 늘이고 곧곧하게 고개를 들고 앉아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분명히 오기로 된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안되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삐걱 열리며, 짙은 색 양복을 입은 두 명의 젊은이가 들어서서, 바람을 피하게 된 것에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포인팅 아이언 형제는 반갑게 손을 내밀어 그의 초라한 집으로 특별한 심부름을 하러 온 두 명의 선교사들과 단정한 인사를 나누었다. 포인팅 아이언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장로들은 수우족의 언어를 거의 알지 못했으므로 많은 말이 오고 가지는 않았으나, 그들 사이에 영이 오고 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장로들은 수우어로 된 찬송가를 가져 왔으며, 그중 한 사람이 몇 곡을 선택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거의 다 낡아 철사로 묶어 놓은 나무로 된 의자를 방 한가운데로 옮겨 왔다. 그는 깨끗하게 다린 손수건 두 장을 조심스럽게 펴서 의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작고 깨끗한 그릇을 꺼내어 손수건 위에 놓았다.

그는 그릇에 작은 빵조각을 놓고 그 옆에 깨끗한 물 한 잔을 놓았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로가 찬송가 37장을 펴서, 세 사람이 열심히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부르고, 한 선교사가 개회 기도를 했다. 그런 다음 선임 동반자가 무릎을 꿇고 떡을 축

몬타나 평원에 있는
낡은 통나무 오두막 집에서
그들이 강하게 느낀
특별한 영을 아쉬워하며
선뜻 떠나지를 못했다.

복했다. 그릇이 포인팅 아이언 형제에게 전달되자,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작은 떡 조각을 집어 들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구세주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의 주름지고 온갖 풍상을 겪은 뺨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물이 축복되어 포인팅 아이언 형제에게 전달된 후, 장로들은 다시 한번 찬송가를 열어 “애통하는 이스라엘”을 다 함께 불렀다. 그런 다음 후임 동반자가 폐회 기도를 드렸다. 의자가 깨끗이 치워지고 벽 옆의 제자리에 놓여졌으며, 모임이 끝났다. 다시 한번 포인팅 아이언의 성약이 새롭게 된 것이다. 장로들은 몬타나 평원에 있는 낡은 통나무 오두막 집에서 그들이 강하게 느낀 특별한 영을 아쉬워하며 선뜻 떠나지를 못했다.

드디어 그들은 사랑하는 형제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에게 다시 상쾌한 평원의 바람이 불어왔으나, 바람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성가시게 생각되지 않았다.

이 일은 용감한 늙은 전사, 포인팅 아이언이 이 생을 떠나 칙큰 혈에 있는 커다란 낡은 인디언 공동 묘지에 안장될 때까지 매주 안식일마다 빠짐없이 행해졌고 그들은 기쁘게 그 일을 수행하였다.*



“오만과 편견”

수잔 이반스 맥클라우드

“미셀, 나는 네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으로부터 너를 구해 내려야. 넌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나는 도서 카드를 책의 홀더에 끼워 넣은 후 책을 로리에게 건네 주고는 코 주변에 주근깨가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는 그녀의 둥글고 푸른 눈을 올려다 보았다.

“브리잠 영 대학에서 소식이 아직 안 왔어요?” 그녀는 푸른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너는 그것에 대해 나보다 더 관심이 많은 모양이구나.” 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 온 인생, 곧 내게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을 내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에 맡겨 버리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언니의 요청을 수락할 거예요.” 로리가 책상 뒤로 돌아가 기일이 지난 카드를 철하면서 새처럼 종알거렸다. “언니는 지난 2년 동안 성적도 그처럼 좋았고, 새로 개종하여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니...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코를 찡긋해 보였다. 주근깨가 늘어진 선이 일그러졌다. “미셀 언니는 좋겠어요. 유타주의 깨끗한 산 속으로 가서 브리잠 영 대학에

다니게 되었으니!”

“내가 새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로리, 그리고 너도 2년 만 있으면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될 그러니?”

“2년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돼요. 특히 언니마저 가 버리면.” 로리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웃어 버렸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로리는 정말 착하고 명랑하고 성실했다. 그녀는 나보다 네 살이나 어렸지만, 그녀는 내가 이제까지 사귀었던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일 것이다. 그녀는 내게 복음을 처음으로 알려 주었다. 그녀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로리는 그때까지 내가 알게 된 유일한 몰몬 소녀였으며, 내게는 참으로 이상적인 훌륭한 본보기로 생각되었다.

나는 잡지 한 무더기를 선반으로 가져가 분류하여 제 자리에 꽂기 시작했다. 나는 16살 때부터 프랭클린 시립 도서관에서 매년 여름마다 일해 왔다. 메인스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2년간 떠나 있었던 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내가 높은 위스콘신 삼림 끝에 모여 사는 인구

7,000명의 도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자리였다.

지난해 여름에 도서관에서는 두 명의 새로운 고등 학생을 고용했는데, 로리는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정하고 말을 잘했으므로, 오래지 않아 직장의 다른 동료들과도 잘 지내게 되고 그녀가 말일성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물문교도와 브리감 영에 대하여 역사책에서 읽은 일이 있으나,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어린 소녀가 나로 하여금 전에는 내가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것에 것처럼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것도 불과 일년 전의 일이었다. 나는 그 짧은 일년의 세월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음에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내가 복음을 알고 교회에 가입하기 전과는 아주 판이하였다. 내가 참여하는 활동과 친구도 달랐으며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달라졌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기도 하고 한편 더 비참하기도 했다.

내가 침례받기 위해 부모님의 허락을 처음으로 요청했던 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몸이 떨린다. 부모님이 내가 물문교에 대해 공부해 왔으며 그들의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는 계셨으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었는지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친은 조용하고 친절하신 분이였다. 부친은 대답하기 전에 한참 동안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내 반응을 보이셨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딱딱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절대 안된다. 미셀.” 어머니의 음성

에는 냉냉하고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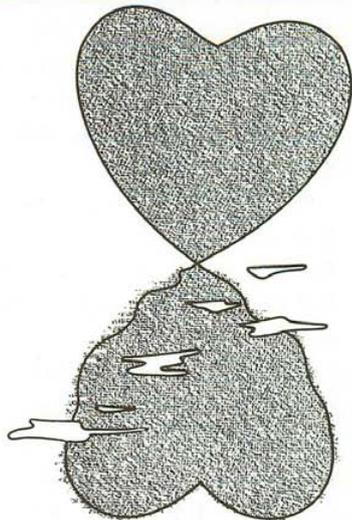
“그렇지만, 왜 그러세요?”하고 내가 물었다. “왜요?”

“왜라니?”하고 소리지르는 어머니의 눈빛은 타는 듯했다. “너는 네가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미셀, 나는 네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으로부터 너를 구해 내려는 거야. 넌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나는 어머니가 물문에 대하여 얼마나 꼼꼼하게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머니에게 집요하게 물어 보아도 어머니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저 계속해서 안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실 뿐이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가 이기셨다. 아버지는 매우 이성적이며 참을성이 많으셨으므로 늘 이기시는 편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내가 20살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몇 달만 지나면, 나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하고, 일도 열심히 하며, 순종적이고, 진실한가를 어머니에게 말씀했다. “저 애는 스스로 인생을 살아 나갈 수 있어요.”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부드럽게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정을 했다. 나는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와 만나 신학 강의를 듣고 내가 이제까지 속해 왔던 교회의 신조와 교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두 다 배우기로 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물문 교회에 대해 연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 것

나는
 부모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허락한다는 것과
 지지한다는 것은
 별도의 것이었다.



이었다. 그런 뒤에 내가 여전히 그들의 길을 거부하고 떠나기를 원한다면, 말일 성도가 되어도 좋다고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시기로 했다.

나는 일어나서, 등을 굽히고 메인 데스크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선반에 꽂을 책들이 높이 쌓인 수레가 있었다. 카운터 위에서 책을 점검하고 있던 로리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할게요. 언니가 여기서 잠깐만 봐 주세요.”하고 그녀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할게.”하고 내가 대답했다. 나는 수레를 소설부로 밀고 가서에이(A)부에 썼다. 아담스...안더슨... 나는 책을 뽑아 들고 거의 자동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애월리- 오스틴... 제인 오스틴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나는 오만과 편견을 들고 선반에 꽂을 자리를 만들었다.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지난 몇 개월간의 내 자신의 생활의 제목이랄 수도 있었다.

나는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았던 일이 내 인생에서 참으로 엄숙하고도 인상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래된 석조 건물의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바보스러울 정도로 신경이 곤두섰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내가 단단한, 윤이 나는 마루 바닥을 지나갈 때 크게 들리는 내 발자국 소리조차 거슬렸었다. 나는 목사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사무실 자체만 해도 나를 위압시키기에 충분했다. 그곳에는 크고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으며, 한쪽 벽 전체는 두둑고 오래되고 무엇인가듬적해 보이는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올리드 박사는 큰 책상 뒤에 있는 갈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나는 그의 건너편에 있는 의자 끝에 앉아 부자연스럽게 서로 떨어져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그래 네가 물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하고 그는 얼굴 표정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불쑥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답을 해야 좋을지 난처해 하고 있는 사이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여기 온 것은 부모님 생각이 지, 그렇지?”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떠올랐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보자.” 그는 책상 쪽으로 몸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는 세 번에 걸쳐 만났으며, 나는 그가 준 책과 소책자를 읽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는 내 질문에 대답했지만, 우리의 토론은 항상 예절바르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한 저녁에 그는 책상 뒤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기로 한 두꺼운 책은 펼치지도 않은 채였다. 그는 사려깊게 눈섭을 치켜 들고 이렇게 말했다. “미셀, 나는 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너나 내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이제 네가 할 일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야.”

그는 머뭇거렸으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의자에서 앞으로 내어 밀고 그의 얼굴 표정과 음성에서 무엇인가 찾아 내려 했다. 그는 의자를 갑자기 밀치고 일어나서, 재빨리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곳으로 가더니 조그마한 책을 꺼냈다. 책상으로 돌아온 그는 그것을 내려 놓더니 큰 책상가에까지 밀어 내 손이 곧 닿을 수 있게 했다. 가죽 표지에 쓰인 글자가 내 앞에 가까이 있어 쉽게 볼 수 있었다. 나는 책 제목을 읽으면서 숨을 훑들며 마셨다. 물몬경.

“그래, 물몬경이지. 나는 그 책에서 설교 내용을 얻는단다.”하고 그가 말했다. 그의 음성은 부드러웠으나 나의 심금을 깊이 꿰뚫는 듯했으므로 나의 심장은 심히 뛰기 시작했고, 오싹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형편이 가능했다면 나도 물몬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책을 들어 신중한 태도로 손 안에 올려 놓았다. “나는 목사란 다. 그것은 곧 내 생활이기도 하지. 내가 안 것이라고는 모두 그거야. 내 부친도 목사였으며, 조부도 그러셨지.” 그는 말을 끊고 위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시선은 슬픔에 젖어 흐려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라면” 그는 여전히 부드럽고 확고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나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올리드 박사는 일어나서 책을 도로 갖다 놓았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이 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 문가에서 그는 내 손을 포근히 잡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오늘 밤 말한 것은 오로지 너한테만 한 것이다. 네가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면 나는 그 말을 한 것을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도록 하자.”

나는 눈과 웃음으로 대답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는 상쾌하고 조용한 밤길을 혼자서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주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침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며, 나는 부모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허락한다는 것과 지지한

다는 것은 별도의 것이었다. 인자하신 아버지마저도 그가 동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단단히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으므로 모녀 사이에 생긴 장벽은 단단히 굳어 버린 것 같았다. “그래도 좋아.” 하고 나는 생각했다. “엄마도 받아들이게 되겠지. 엄마도 어려울걸야. 참아 야지.”

그러나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 모두 다 정상으로 돌아가 전과 다름없이 생활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물몬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렸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관심도 없었으며 신경쓰려 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아무도 말하거나 서로 감정을 나누고자 하지 않았다. 나는 상당히 여러 면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알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집에 와 보면, 질문을 하거나 호기심을 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식구들은 그들이 무시해 버리면, 내가 제풀에 식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이것 저것 물으면서도 나하고만은 말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같은 집에 산다는 그것뿐이었다. 아무런 대화도, 친근감도, 따스함도 전혀 없었다.

내가 일년 가까이 데이트해 온 브라이언은 찾아오는 횡수가 차차 줄어들더니 결국 발길을 끊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공통되는 점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코린조차도 내게 영화를 보거나 음악 듣거나 수영을 하러 가자고 청해 오

는 일이 없어졌다. 물론 그것은 그녀의 잘못도 아니었으며 나의 잘못도 아니었다. 나는 외톨이가 되어 아무 곳에도 설 자리가 없었다.

그 지역의 지부에 젊은 사람이라도 몇 있다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도 못했다. 프랭클린 시티는 조그마한 곳으로, 열두 살과 열 네 살 난 로리의 두 남자 동생을 제외하고는, 로리가, 그곳에 있는 유일한 물몬 십대였다. 사태는 점점 더 그런 식으로 발전했으며, 앞으로 도 더 그럴 것이다. 지금은 단지 로리와 나뿐이었다.

나는 빈 수레를 데스크로 밀고 오다가 갑자기 거의 끝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하고 로리가 물었다.

“그저 생각 좀 하느라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로리가 다정하기는 했으나, 내 처지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부모는 훌륭하고 활동적인 회원이었다. 그들은 가정의 밤 시간을 갖고 가족기도를 함께 한다. 그녀는 어머니가 딸과 말을 하지 않는다는지, 어린 동생들이 누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아버지의 눈에 알 수 없는 슬픈 빛이 감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도서관에서 나와 차를 세워 둔 곳으로 걸어갔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저녁이 되면서 한결 수그러졌다. 나는 도서관 담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소나무와 넝쿨진 장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내심 행복함과 신선함을 느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문제로 기도하고 금식했다. 이제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실

천해 나가기 위한 신앙이 필요했던 것이
다.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눈
에 띠는 것은, 현관의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였다. 흰 봉투에 내 이름이 타
자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브리감 영 대학
명칭이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보았다. 나의 요청
이 수락된 것이다. 위스콘신 대학 교수
가 추천하여 내가 신청한 장학금이 승인
된 것이다. 나는 그 내용을 읽고 또 읽어
보았다. 꿈이 실현된 것을 믿을 수가 없
었다.

내가 머리를 들어 보니 어머니가 문에
서 나를 바라보고 서 계셨다. “네 얼굴만
보아도 알 수 있으니, 편지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다.”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하고 나는 말문을 열었으
나,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화난
어조로 내 말을 가로막았다.

“넌 네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구
나. 넌 건방지고 독선적이며 너밖에 모
르는구나. 꼭 베스 언니 같구나. 네 이모
가 한 일을 너도 알고 있지. 이모는 우리
를 버렸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
같다.”

“어머니!” 나는 절망적으로 울부짖었
다. “난 엄마를 영영 떠나는 것이 아니에
요. 그냥 대학에 가겠다는 것이예요. 9
개월간 대학에 다니는 것, 그것 뿐이예
요.”

“그건 지금의 네 생각이지. 미셀, 네
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겠니?
베스 이모도 한번도 오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건 달라요! 이모는 무슨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셨던 거예요. 현터
할아버지가 이모를 보내 다시는 돌아오
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
보셨다. “네가 물론 교회에 들어간 그 순
간 넌 우리와 우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으
로부터 등을 돌린거야. 넌 이제 우리 식
구가 아니야, 미셀, 네가 유태로 가면,
최후의 유대마저 끊어지게 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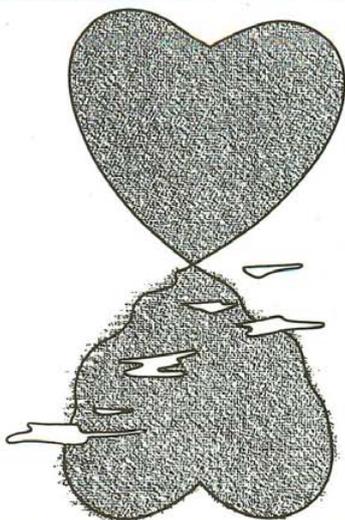
“어머니, 안돼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으나,
어머니는 몸을 피하셨다.

“넌 어찌면 내게 이럴 수가 있니?”하
며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넌 어찌면 그
렇게 이기적이고 잔인하니? 베스 이모
는 내게 언니였지만 결국 내게서 등을 돌
렸단다. 이모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 곁을 떠났어. 넌 꼭 이모같구나. 미
셀, 어찌면 그렇게도 같으냐!”

나는 어머니 곁을 지나 마구 달려, 부
엿으로 해서 뒷문으로 빠져 나와 조용한
곳으로 갔다. 여름 밤 공기는 온화했지
만 나는 전신이 떨리며 오한이 났다. 나
는 어머니가 나를, 영영 떠나 버린 베스
이모한테 비교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
지 못했다. 나는 전혀 모습을 알길 없는
이모가 엄격한 조부에게 의절당하여 떳
떳지 못한 수치스런 생활을 하며 어디론
가 종적을 감추었다는 오래 전의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에 나는 그것을 사랑스럽고도 애뜻한 낭
만적인 이야기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그러한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
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
다. 어찌면 내 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내가 것처럼 부끄러운 존
재란 말인가? 예전에 조부께서 이모와
의절했던 것처럼 나와 의절하시기를 원
하시는 것일까?

그날 밤, 늦게 내가 내 방에 혼자 있는
데, 남동생 풀이 들어왔다. “누나가 얼

“네가
 물론 교회에
 들어간 그 순간
 넌
 우리와 우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등을 돌린거야.
 넌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야.”



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말하러 왔어.”하고 그가 말했다.

“무슨 말이니?”하고 내가 물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잖아. 누나가 엄마 속을 썩혀 드려서, 엄마는 소리지르고, 우리도 다 내어 쫓고, 밤중 내내 우시잖아. 누나는 하는 일마다 골치거리야.”

“그게 아니야, 풀!”하고 나는 변명했다. 뱃속에서 딱딱하게 무엇인가 뭉쳐지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몸을 돌릴 때마다 사과를 해야 된다는데 수치심을 느꼈다.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조금도 없어.”

“그렇지 뭐야. 나는 누나가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잘 되기를 바래!”

그는 내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방에서 뛰어나갔다.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가 한 말은 정말 온당치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 일

어난 일, 실제로 내가 느낀 것을 어떻게 그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조금 뒤에, 어린 동생 케이티가 내게 밤 인사를 하러 왔다. 동생은 친진스런 커다란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언니는 왜 멀리 떠나 우리와 떨어지려는 거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언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갈거래.”

나는 팔을 내밀어 동생을 꼭 껴안았다. “그런 게 아니야, 케이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한테도 좋을 거야. 내가 매주 편지도 보내고 소포도 부쳐 깜짝 놀래 줄 테니까.”

동생은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나는 동생을 꼭 껴안고 수없이 뺨을 비벼댄 후에야 풀어 주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찌 하려는 것인가? 왜 어머니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

른 사람이 되게 하는 벌을 내게 주는 것인가?

그 후로 하루 하루를 보내기가 우울하고 지겹기만 했다. 때로 나는 방어적이 되어 어머니에게 화가 나, 마구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같이 작아지고 겁이 나며, 어머니에게 매달려 위안을 받고 모든 걱정 근심을 털어놓고도 싶었다. 어머니는 그 어느 것도 기뻐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으며, 나도 때때로 맘이 약해져,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 기도는 너무나도 많이 응답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 나가야 할 인생의 지침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떠나는 것이 가족들에게 더 나을지도 몰랐다. 갈등과 불화의 근원인 내가 가까이 있지 않다면, 가족들도 이해하기가 쉽게 되고, 보다 마음이 넓어지고 친절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나를 아쉬워하고 조금은 고맙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두려웠다.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로리만이 딛고 있는 세계를 알아주고 있다. 내가 온 세상을 품에 안았고 햇빛을 받아 행복하게 빛나고 꿈이 실현된 성지인 시온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나는 한번도 유타에 가 본 적이 없었다. 실제로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했다. 나는 유타주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브리감 영 대학에 관해서도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다른 물몬들은 어떤 할 것인가? 내가 좀 달라 보이고 어떤 일을 잘못한다면 그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우리의 작은 지부는 극히 일시적

이고, 실험적인 단계에 있었다. 수많은 말일성도 속에 섞여 있으면 어떤 것인가? 그들이 나보다 복음을 열배나 더 잘 안다면 어떻게 하지?

드디어, 어느 사이엔가 그 길고 긴 날이 지나가,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메디슨 비행장까지 나를 태워 줄 버스가 오기 전날, 나는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고, 오래 전에 이모가 했던 대로 내가 어머니를 거부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에 나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머리를 꽤지 꼬리처럼 잡아 끈 얼굴이 더러운 어린 아이였다. 심술궂은 남자 아이들이 길가에서 나를 쫓아와 나는 넘어져 무릎이 깨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잔디밭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에게 오라고 불렀다. 갑자기 어머니가 그곳에 나타나 든든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었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쓸어 주고, 내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상처난 무릎을 깨끗이 씻어 약을 바르고는 큰 반창고로 예쁘게 발라 주셨다. 나는 아직도 내 살갓에 와 닿는 듯한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고, 어머니의 얼굴에 사랑스런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잠에서 깬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필요로 했는가를 어머니는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충고나 도움을 요청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어머니가 보기에 나는 내가 능력이 있고, 충실하며, 자신감에 차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물몬이즘은 어머니를 내 생활에서 떼어 놓았으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든 보상하여,

내가 아직도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며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지 알려 드릴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이 몇 달 동안 나는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어머니가 잘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며, 나 혼자만 피해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어머니를 내 방으로 오시게 하여 짐 꾸리는 것을 도와 주시겠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매우 깔끔하고 규모있는 분이므로 내게 가장 필요한 필수품들을 나는 도저히 어머니만큼 정리하여 챙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다.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를 칭찬해 드리자, 이내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의혹의 표정이 사라지고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기적용 불려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여전히 내가 얼마나 두려웠으며,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그리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에서는 차디찬 분노의 빛이 사라졌으며, 버스 정거장까지 따라와 주셨다. 내가 편지를 어머니 손안에 밀어 넣고 팔을 벌려 어머니 품에 안기자 어머니도 나를 꼭 껴안았고,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한참 동안 있었다. 나는 다만 눈물을 거두어들이기 뿐이었다. 나는 유리창을 통해 가족들에게 손을 저으며, 내가 참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바랐다.

비행기가 솔트레이크 비행장에 닿을 때쯤 해서, 나는 하루 종일 여행한 데다가 많은 생각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비행기가 높은 루키 산맥을 지

날 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갖가지 봉우리가 갈라진 틈과 구름과 산 그림자가 엇갈려 내 눈에 비춰 아름다운 세계를 연출해 내었다.

그러나, 막상 비행기가 착륙하여, 다른 승객들 틈에 끼어 혼잡한 비행장을 빠져 나오면서 보니, 모두 다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머뭇거렸다. 나는 얼굴 모습이 곱고, 갈색 머리에 매력적인 중년을 넘은 여인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가 다가오자, 어딘가 낯익은 듯이 여겨져서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분은 곧장 내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다. 발을 옮겨 바닥으로 내려서, 다시 머리를 들어 보니 그분이 바로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분은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어디선가 본 일이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미셀이지?”하고 그녀는 말꼬리를 울려 물었다. “네가 미셀 브리그스 맞지?”

“그렇습니다만...” 나는 말을 얼버무렸다.

“그런 줄 알았다.”하고 그녀가 말했다. “넌 엄마를 꼭 닮았구나.”하고 그녀가 다시 웃음지었다. “난 널 놀라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야. 애야, 내가 베스 이모란다.”

“이럴 수가!”하고 내가 외쳤다. “어떻게 해서 여기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아시고 나를 찾으러 오셨어요? 정말 어떻게 나를 알게 되셨는지...”

“미셀, 너의 엄마가...”하며, 내 손을 가만히 잡아 주었다. “내가 계속해서 네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지만, 한번도 답장이 없었지.”

“어머나, 어머니가 이모 계신 곳을 아셨다고요?”

“알았지,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내가 나왔을 때는 너희 엄마는 아주 어렸을 때였고, 헌터 할아버지가 엄마의 마음속을 철저히 물들여 놓았던 거야. 엄마가 나이들어 이해할 때쯤 되어서는…이미 늦었던 거지.”

“이해하다니요? 무엇을 이해해요?”

이모는 잠시 말이 없더니,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내가 너만 했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물론 교회에 가입했다. 내가 어리석었지. 내가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다쳤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집을 나와 유타주로 갔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어디로 갔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단다. 할아버지는 내가 결혼하여 낳은 세 외손자를 한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러나 미셀, 나는 계속해서 프랭클린시티 신문을 구독하여 네 엄마의 결혼에 대해서도 읽어 보았고, 엄마에게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 언젠가는 엄마의 마음을 움직여 내게 답장을 보낼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단다.”

“계속하세요?” 나는 놀라움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응, 계속했지. 계속해서 나는 주님께 엄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왔다. 주님은 미셀, 너를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야.” 이모는 눈빛이 젖어 들며, 내 손을 힘있게 쥐어 주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해서…” 여전히 나는 이해할

나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메어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네가 물론 교회에 가입했다는 편지를 보내고, 브리검 영 대학에서 공부할 것이니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한 거야.”

“어머니가…그러셨어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네가 참 훌륭한 아이이며,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내게 말했어.”

나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메어 앞을 볼 수가 없었다. 나의 기도와 베스 이모의 기도, 그리고 염려해 주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오만과 편견을 딛고 일어난 것이다. 누가 회생과 사랑에 관해서 이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내 손을 잡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웃음지었다.

“갈 길이 멀어요.”하고 내가 말했다.

“넌 잘 해낼게다.”하고 이모가 대답했다. 나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모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정말 그래요.”하고 내가 수긍했다.

“난 꼭 해내겠어요. 나는 참된 말일성도가 되겠어요. 어머니에게 자랑스런 딸이 되겠어요.” *

(이 이야기는 어떤 여학생이 실제로 겪은 경험을 이야기로 꾸민 것이다.)